

 상주적십자병원 대한적십자사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6. 10. 22.(목)	매수	2매 (사진 별도)
실장	한은주	전화	054-530-3042
담당	김진이		054-530-3029

한국수출입은행 후원으로 외국인 산모 출산(쌍둥이) 지원... 상주적십자병원, 분만취약지 의료안전망 강화



상주적십자병원이 한국수출입은행 후원 누구나진료센터 사업을 통해 의료취약계층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있다.



상주적십자병원 의료진이 지역 임신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필수 분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누구나진료센터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한 출산 도와

- 최근 상주적십자병원(병원장 김혁수)은 한국수출입은행 후원으로 추진하는 ‘누구나진료센터’ 사업을 통해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산모의 쌍둥이 출산을 지원했다.
- 이번 지원 대상자는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 임신부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임신 기간 산전 진찰을 받아 왔다. 배우자는 농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태국에 있는 자녀의 양육비도 부담하고 있어 출산에 따른 의료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 대상자는 출산을 앞두고 새벽 시간 조기 양막 파수로 응급실을 내원했으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쌍둥이를 출산했다. 상주적십자병원은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했다.
- 특히 이번 사례는 한국수출입은행 후원 ‘누구나진료센터’ 사업을 통한 의료비 지원이 의료취약계층 외국인 산모의 출산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주적십자병원은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을 추진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상주적십자병원은 365일 24시간 분만이 가능한 분만취약지 거점병원으로서 지역 내 임신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누구나진료센터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여건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 상주적십자병원 관계자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후원으로 추진하는 누구나진료센터 사업이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산모의 안전한 출산에 도움이 되어 뜻깊다” 며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 한편, 상주적십자병원은 한국수출입은행 후원 누구나진료센터 사업을 통해 의료취약계층과 외국인주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분만취약지 거점병원으로서 지역사회 필수의료 제공에 힘쓰고 있다.